



“더위에 분수가 최고야”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29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도로변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역, 일단 존치한다

내년 수서발 KTX 노선 유치·도시철도 2호선 연계·유라시아 철도 시대 등 대비키로

존폐 기로에 섰던 93년 역사의 광주역을 일단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KTX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역의 존폐 여부를 검토한 끝에 내년 수서발 KTX 노선 유치,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연계, 유라시아 대륙 철도 시대 등을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광주시가 내놓은 광주역 기능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진입이 중단된 광주역의 기능변화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

가 연구수행 등을 종합한 결과 광주역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광주역의 장래 도시발전 가능성과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광주역 기능을 존치하면서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역 인근 도시재생 사업도 광주역 기능 존치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광주역의 교통기능 설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광주역 주변 개발 방안 마련(도시재생국), KTX 광주역 진입 지속 추진(교통건설국)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가 다수가 개발 잠재력이 있는 철도(도심내 철도역)의 경우 폐지보다는 존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 송정~서울 용산) 개통식에서 아시아횡단 대륙철도를 공식

언급한 점도 광주역 존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제 한국철도는 대륙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면서 “호남고속철도도 휴전선을 넘어 아시아횡단 철도망으로 연결돼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반대론자들은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더라도 주변지역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전을 경유해 익산역이 종점인 일부 KTX(1일 편도기준 9편)를 광주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26년만에 광주·전남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 이정현의 정치실험 1년

### 민생 속 들어가 지역감정 녹이고 ‘머슴’ 자처...예산·의대유치 매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지 꼭 1년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 의원은 순천·곡성에서 지난해 7월3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광주·전남에서 26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그 효과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후 1년, 이 의원은 매주 순천·곡성 각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회관 등에서 하룻밤을 자는 행보를 38주째 이어오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 조례호수 공원 잔디광장에서 ‘이정현 함께하는 광장 토크’를 넉 달째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그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깨알같이 메모한다.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해당시군·중앙당·정부 등과 상의해서 풀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지역구로 향할 땐 아예 점퍼와 면바지로 갈아입는다. ‘머슴’을 자처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예산 폭탄’과 ‘의대 유치’ 등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그는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 “대만족”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그는 “국회에서 신규 반영 내지 증액한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은 90여개 사업에 1106억원이다”며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항목별로 ▲SOC 393억원 ▲농림수산 70억원 ▲문화·관광 182억원



▲산업, R&D 375억원 ▲지역개발 86억원 등이다. 지난 5월21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대 유치 시동을 걸었다.

한편, 이 의원은 29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이정현, 김민경 부부가 큰절로 보는 인사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7월30일 보궐선거 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해야 할 지역일들은 산적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며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미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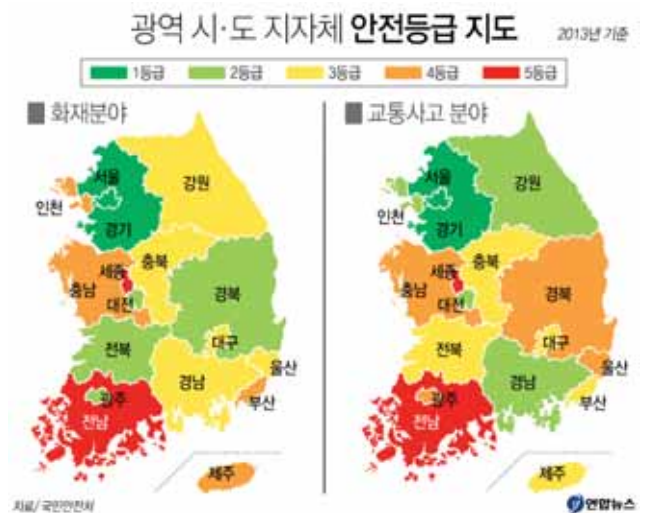
## 전남, 화재·교통사고 안전 전국 최하위

국민안전처 발표, 화재·교통사고 위험 5등급

광주는 화재 2등급 ‘양호’·교통사고는 4등급

전남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화재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화재에 대한 안전등급은 비교적 높았으나 교통사고 부문은 낮게 나왔다. <관련기사 3면> 국민안전처는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분야와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29일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을 여러 가지 통계지표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까지 부여한 것이다. 지수 산출에 반영되는 지표는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감염병·자살·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38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는 피해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망자수(인구 1만명당), 발생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음식점 및 산림면적, 피해 경

감에 기여하는 병상수(병원 정원) 등을 종합해서 산출했다. 교통사고분야는 사망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구조구급대원수 등이 지표에 포함된다. 8개 특별·광역시 에 포함된 광주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4등급을 받은 반면 전남은 두 재난분야 모두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다.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시가, 도 중에는 경기도가 화재·교통사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유형별로 1~5등급을 매겼다. 광주 북구가 화재에서 5등급, 광주 동구가 교통사고에서 각



각 5등급을 받았다. 전남 기초자치체 가운데 시단위에서는 목포가, 군단위에서는 무안·영광이 화재에서 1등급이었으며, 구례·무안·완도가 교통분야에서 2등급으로 분류됐다. 완도가 화재분야, 나주·보성·영암이 교통분야에서 각각 5등급으로 평가됐다. /윤현석·박진표기자 chadol@

###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GLA-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 GLA 200 CDI 2,143cc 1,900kg 7G-DCT 복합연비 16.2km/l (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0g/km  
\* GLA 45 AMG 4MATIC 1,991cc 1,635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복합연비 10.2km/l (도시연비: 9.0km/l, 고속도로연비: 12.1km/l),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73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